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12월 2일(토요일) 제1469호



사진은 '2021 장로장립예배'

‘Acts29 비전의 통로가 될 장로 57명 장립’

12월 2일 오후 4시 ‘장로장립예배’
김운용 장신대 총장 설교,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온누리교회 장로 57명이 장립된다. 12월 2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23 장로장립예배’를 드린다. 이날 미주 OMA(Onnuri Mission Alliance) 소속 장로 1명을 포함한 신임 장로 57명(장로 55명, 명예 장로 2명)이 하나님의 새 일꾼으로 세워진다. 2023 장로장립예배는 1, 2부로 나뉘어 드린

다. 1부에서는 이인용 장로 대표기도, 장로합창단 특송, 김운용 총장(장로회신학대학교) 설교, 간증 2부에서는 서약, 세족식, 이재훈 위임 목사 안수기도 및 선포, 홍성호 장로 권면, 축하 특송 등의 순이 이어진다.

이재훈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장애인사역본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천하

보다 귀하게 여기며 겸손하게 섬기는 장로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황성주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차세대사역본부)는 “연약한 자들과 다 음세대를 섬기며 세상의 소금과 빛 되는 장로가 되겠다”고 고백했다.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들은 지난 3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7개월 동안 이어진 ‘2023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노회에서 치른 장로고시를 통과했다. 2023 장로사관학교는 ‘온누리교회와 Acts29’, ‘바람직한 장로상’, ‘금훔의 영성’ 등을 주제로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의 소명과 역량을 키우도록 도왔다.

한편 지난 11월 25일(토)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는 ‘2023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명예권사 3명, 권사 223명, 안수집사 322명(남 133명, 여 189)이 임직됐다<관련 기사 7면>.

맹신자 권사(부천온누리교회)는 “귀한 직분을 주신 만큼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겠다”고 임직소감을 밝혔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랑앓나눔 시작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

‘2023 사랑앓나눔’이 시작됐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11개 공동체가 12월 2일(토), 9일(토), 16일(토)에 실시한다. 불우이웃 및 차상위계층에 생필품과 반찬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Pole2대학부 작은자교회, 하늘대학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요셉청년부 중랑노인종합복지관, 허브대학부 중앙사회복지관과 신양장로교회, SNS청년부 수서명화복지관, 산마루교회, 갈렙청년부 종로종합사회복지관, W청년부 나섬교회, 여호수아청년부 교남주민센터, J4U청년부 공릉동종합사회복지관, 길청년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CH+청년부 등대교회를 섬길 예정이다. / 김다예 기자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행 28:31)

2023-20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2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오전 5시 30분

2023-20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행 28:31)을 주제로 12월 11일(월)부터 1월 20일(토)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된다. CGN Live 방송과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로도 참여할 수 있다.

2023-2024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주별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선포한다. 1주(12월 11~16일) ‘그리스도께 담대히 나아감’, 2주(12월 18~23일) ‘그리스도와 담대히 동행함’, 3주(12월 25~30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세상을) 거절함’, 4주(1월 1~6일) ‘그

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도전함’, 5주(1월 8~13일) ‘그리스도께 담대히 순종함’, 6주(1월 15~20일)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이다. 이재훈 위임목사,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박종길 목사, 강부호 목사 외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담당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의 취지는 각 성도가 2024년 전도할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 4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이다. 더불어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의 기도 역량을 강화하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는다. / 홍하영 기자

2023 엔젤트리 사연 2,700건 연결

4,700여 건 연결 기다리는 중

‘2023 엔젤트리’ 사연 2,700건이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연결됐다(11월 30일 기준). 지난 11월 25일(토)부터 시작된 2023 엔젤트리에 접수된 사연은 7,400여 건이다. 아직 4,700여 건의 사연이 연결을 기다리고 있다.

엔젤트리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국내 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엔젤트리 데스크와 엔젤트리 홈페이지(angeltree.kr)에서 참여하면 된다. 사연을 뽑고, 이웃들에게 선물을 보내면 된다. 선물을 발송한 성도들은 사회선교본부 엔젤폰(010-6442-0191)에 선물 발송을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반드시 보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앙

창세기 35:1~7

때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영적 상태를 보여 주기도 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거나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상태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지리적 위치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네 가지 땅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바벨론이 핵심적인 지명인데, 우리의 영적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땅입니다. 첫째, 애굽은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상태를 지역으로 표현하면 ‘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광야는 불신앙과 방황의 땅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했던 지역이 광야입니다. 불필요한 땅이지만,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 걸어야 하는 땅입니다. 셋째, 가나안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누리는 영적 축복의 땅입니다. 넷째, 바벨론은 불순종으로 인해 징벌을 받아 가게 되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을 때 추방 받아 가게 되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거주했던 지역이 보여주는 영적 상태

야곱이 거주했던 지역이 그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크게 네 지역이 등장합니다. 첫째, 그가 어려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자란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은 야곱에게 애굽과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움켜쥐려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던 땅입니다. 둘째,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벧엘’입니다. 그 땅은 그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한 영적 가나안과 같은 땅입니다. 셋째, 그가 도망했던 ‘하란’은 그가 함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 도피해야만 했던 영적 바벨론 같은 땅입니다. 넷째, ‘세겜’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은 야곱에게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던 시기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땅에 머물고 있습니까? 야곱은 물리적으로는 가나안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바벨론에 있을 수 있고, 세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땅에 서 있는지가 영적 상태를 보여 줍니다.

야곱이 형에서와 화해 한 이후 머문 땅이 세겜입니다. 벧엘에서 약 20km 떨어진 산기슭에 있는 구릉지역입니다. 그곳에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가 세겜에 머문 이유는 여러 조건이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였을 것입니다. 이제 형과도 화해

해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길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없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고, 이에 대한 복수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야곱이 30년 전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일로 인하여 일어난 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정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 특히 세겜성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다가올 복수를 생각하면 야곱이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생긴 이유

야곱의 가정에 왜 위기가 생겨났을까요? 변화되지 않는 야곱의 모습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게 딸이 강간을 당했어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들을 학살했을 때도 야곱은 ‘나는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뿐입니다. 왜 위기 속에서도 야곱은 미온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세겜에 머무는 10년 동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보다 자기 자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옛 자아의 영향력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살기보다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벧엘에서 드렸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벧엘에 단을 쌓고, 십의 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있었었습니다. 야곱이 형에서와 화해한 이후 벧엘로 가지 않고,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살고 있었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생활이 야곱이 하나님과 맺었던 서원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지만, 야곱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손해입니다.

딸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아들들이 대학살을 벌였을 때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피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광야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세겜이 영적 광야였습니다. 방황의 땅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는 영적으로 여전히 광야에 머물고 있었었습니다.

야곱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만약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네게 그것을 반드시 요구하실 것이니 그러면 네가 죄지은 것이 될 것이다”(신 23:21).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하는 까닭은 그 서약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서약을 잊어버렸습니다. 30년 전 약속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30년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삶이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면, 그 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벧엘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세겜이라는 위치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야곱이 세겜에 계속 머물렀던 영적인 상태가 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향하지 않고 벧엘로 갔더라면,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떤 삶이 펼쳐졌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네가 네 형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네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1절).

위기에 빠진 야곱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라”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처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의 영혼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장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벧엘로 올라가라!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 버리라.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일어나서 벧엘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2~3절).

하나님이 “벧엘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야곱은 그 말씀만 들어도 자신이 무엇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엘벤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벤엘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단순한 여행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겜에 머무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벤엘로 그냥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권속에게 “너희들이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 입으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이 벤엘로 올라가는 선결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벤엘로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구체적으로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케 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자신의 가족 안에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대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평상시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깨닫고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던 것, 묵인하고 있었던 것, 모른 채 했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야곱의 가정에도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 되었을까요?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드라뎀’이라는 가족 수호신 같은 우상을 라헬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야곱이 묵인한 것입니다. 그 이후 세겜에 정착하면서 온갖 이방 신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가정 안에 우상이 가득했는데 야곱이 묵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벤엘로 올라가라”라고 하셨을 때 야곱이 무엇을 먼저 행하고 벤엘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싫어하는 이유는 예배 자리 자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때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니까 싫은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벤엘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자기 집안에 우상이 많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미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실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나의 절대적인 관심을 가져가는 모든 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살고, 그 속에서 목적을 찾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G.K. 체스터턴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그칠 때 우리는 아무것도 경배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무엇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벤엘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면 “무엇을 돌이키라는 말입니까?”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할지 압니다. 하나님이 그 분별력을 이미 주셨고, 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경배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처럼 될 것이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시 115:8).

우리는 경배하는 대상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어 갑니다. 우상을 섬기면 우상처럼 변해갑니다.

야곱은 단호하게 자신의 가족을 정결케 하고, 30년 전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키며, 벤엘로 올라갔습니다. 벤엘로 가는 그 과정도

위험합니다. 세겜성과 그 이웃 민족들이 함께 공격해 올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벤엘로 올라가려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과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벤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곳을 엘벤엘이라 불렀습니다”(5~7절).

야곱이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 세겜에 가기 전 먼저 와야 할 그 자리, 30년 전 하나님과 맺었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네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네 몸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또한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11~12절).

야곱이 자신의 가정에 위기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시는가?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가? 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축복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벤엘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전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결코 안전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약

속을 따라,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걸어가는 인생은 그 어떤 세상의 위협과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하나님과 마땅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벤엘의 축복,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야곱이 벤엘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벤엘’이라고 했습니다. ‘벤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벤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벤엘을 엘벤엘로 바꿨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소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배당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만나야 합니다. ‘엘벤엘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제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지, 우상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가득한 자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엘벤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성경적 결혼문화 지키기

인간이 아직 죄가 없었을 때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정하셨다. 사도 바울은 결혼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스도와 그 교회 사이 관계의 큰 비밀을 품은 모형이라고 말한다(엡 5:32).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혼인의 언약에 대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인치셨다.

성경 전체 말씀에 따르면, 결혼은 조건에 따라 파기할 수 있는 계약 관계가 아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의 관계다. 결혼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부가 된 두 사람이 십자가 능력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을 함께 감당하게 하신다. 서로를 격려하며 신앙 여정을 함께 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결혼은 부부 당사자의 행복과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일이다. 정결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후에도 그 언약을 지키며, 결혼의 모든 유익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는 결혼의 서약, 생명의 잉태와 연관된 성적 책무와 기쁨을 감각적인 성적 쾌락을 누리는 권리로 대체해 버렸다. 인터넷 발달로 어릴 때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은 결혼의 신성한 언약과 돌이 한 몸을 이루라는 부부의 성적결합에 대한 가장 큰 공격이다. 어릴 때부터 성적 거룩함을 지킬 수 없게 만들고, 방탕과 자아에 대한 도착으로 성적 에너지를 낭비해 버림으로써 결국 혼전의 정절과 결혼 후 부부 관계를 파괴할 가장 큰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 과학기술은 임신을 피하고, 임신했더라도 약물 혹은 수술로 잉태된 생명을 없앨 수 있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법에 따른 제재마저 삭제해 버렸다. 많은 젊은이에게 결혼은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로 치부되고, 동거라는 계약 관계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이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구시대의 유물이라 비판하며 결혼 자체를 좌악시한다. 성공을 향해 자녀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부모들은 그 투자의 결실을 수확하고, 자녀의 경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 결혼, 임신, 육아를 권장하기가 힘들게 되어버렸다. ‘LGBTQIA+’라는 성 혁명의 폭풍은 인간존재와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기독교의 관점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심이, 또 성경의 말씀이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즉시 돌아서야 한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존재로 인생의 고비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의 죄책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성경의 기준을 잘못 이해해서 혹은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 53:6).

우리의 양심이, 또 성경의 말씀이 그 잘못을 지적할 때 즉시 돌아서야 한다. 자기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기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하거나 심지어 선과 악의 기준을 뒤집으려는 행위는 더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길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이미 치르셨고, 우리의 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결코 성적인 욕구를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단지 그 욕구는 결혼이라는 언약의 범위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만 생성되고 누리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성 혁명의 이념은 “성적 욕망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향해서나 생길 수 있고, 그렇게 생긴 욕망은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세속주의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성관계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쾌락주의에 빠지게 함으로써 그 선물이 주는 기쁨을 축소한다. 쾌락주의는 중독성을 가지게 되어 점점 더 도착적인 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기독교의 결혼관을 마음 깊이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커플은 성 혁명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혁명 전사다. 기독교의 절대적인 도덕률과 성적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세속의 시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유혹하거나 공격해 오는 거친 풍파와 마주칠 게 분명하다. 그때마다 사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볼 일이다(행 4:19). 그리스도인은 결혼의 언약에 충실함으로써 성 혁명에 맞설 수 있으며, 창조·문화명령을 통해 부부간의 성의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오직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선물로서의 성경적 성 개념을 자녀의 나이에 맞게 차근차근 가르쳐야 한다. 성경의 성 윤리를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을 열거하고, 세상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그들을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알려며 우리를 격려하신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영역주권과 일반은총

성도들의 불행과 불신자들의 행복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무환 장로
(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비기독교인의 성공과 행복에 대해 의문을 가지곤 한다. 반대로 기독교인의 예기치 않은 불행에 당황할 때도 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받아들이지만, 정작 세상에서 목도하고 경험하는 많은 사건 중에서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색할 만큼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딜레마는 때로 성도들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약화하게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다’라고 외치지 않은 영역은 단 한 치도 없습니다.”

이 상징적 문장은 1880년 10월 2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개교한 자유대학의 설립자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개교연설문에 들어 있다. 영역주권의 핵심 사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자유대학의 개교 연설에서 힘주어 외친 영역주권은 위대한 종교개혁자이자 개혁주의 신학자 존 칼빈(John Calvin)의 ‘하나님 절대주권’ 신학의 재선포자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한다. 영역주권(Sovereignty in its own sphere)을 직역하면 교회, 국가, 과학, 예술, 가정, 경제 등 모든 영역은 각각 개별적 주권을 가지며, 그 모든 영역의 중심에 주인(통치자) 되신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다는 개혁주의 신학 사상이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후 영역주권 교리를 확장하고 가다듬어 6년에 걸쳐 기독교 주간지 <더 헤라우트>(De Heraut)에 ‘일반은총’ 관련 내용을 연재했고, 1902년부터 1904년까지 출판된 세 권의 책(일반은총론; De Gemeene Gratie)으로 발표했다.

일반은총(Common Grace)이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배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반면 **특별은총(Special Grace)**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믿는 자에게만 하락된 구원의 은총이다. 일반은총과 구별된다. 성경은 일반은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45).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반은총은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 세계를 포함한다. 인간의 지식 체계, 문화와 예술, 국가와 사회, 인간의 도덕 등 모든 분야에 깃들여 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반은총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불신자라도 도덕적으로 청렴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부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도 불성실하거나 재능이 없다면 그 분야에서 만족을 누리기가 어렵다. 하나님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저주를 받은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일반은총으로 부여해 주셨다(창 4:20~22). **하나님이 오늘날도 그 능력의 손으로 만물의 질서를 붙드시고, 일반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인내와 사랑 때문이다(벧후 3:9).**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고결한 도덕성과 양심이 있고, 비록 어지러운 사회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양심과 법, 도덕으로 그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은총이라는 선물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이나 심오한 미술 작품, 대문호들의 시와 소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신성으로 빚어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특별은총과 함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반은총의 축복을 누리며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일반은총을 허락하시고, 인내로써 그들과의 관계의 접점을 유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반은총의 다양한 영역에서 복음 전도의 본분을 위해 애써야 함이 마땅하다.**

덕분에 함박웃음 짓는 사람들

인천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 ‘함박웃음’ 사역

없었던 웃음을 찾아주는 사역이 있다. 인천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가 섬기는 ‘함박웃음’ 사역이다. 함박웃음 사역에서는 인천 함박마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언어 문제와 생활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이웃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된 고려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역이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고려인들은 160년 전 연해주로 이주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아무것도 없는 그 낯선 곳에서 새로 삶의 터전을 닦은 눈물겨운 사람들이다. 당시 소련에 거주 중인 고려인들이 증가하자 그들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지로 강제 이주시켰다. 소련에서 생활하던 고려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짐보따리 하나 들고 낯선 땅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것도 아무런 대책과 대안도 없이 허허벌판에 버려졌다. 고려인들은 그곳에 새로 보금자리를 만들고 터전을 닦으며, 강인하게 버텼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다시 한번 기반을 잃은 고려인들이 조국 땅을 찾기 시작해 정착을 위한 이주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고려인이 8~9만 명 정도다. 그들은 1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의 문화를 잘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말을 잊어버렸다. 당시 소련에서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고려인들에게 언어의 장벽이 정말 높다. 게다가 고려인 가족 대부분 발해를 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흔하다.

인천시 연수1동에 있는 함박마을은 우리나라에서 고려인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인근 초등학교 재학생 절반 이상이 고려인이라 러시아어 수업을 병행하고 있을 정도다.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러시아어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하고, 자연스럽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다. 고려인 아이들은 한국어 수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 영향으로 고려인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잘 섞이지 못하고, 자꾸만 소외되는 일도 잦다. 한국 아이들은 함박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하나둘 이사를 가고, 그 빈 자리를 또 다른 고려인이 채우고 있다. 인천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가 함박웃음 사역을 시작한 계기가 바로 이것이다. 고려인들의 한국 정착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함박웃음을 선물하는 게 목적이다.

함박마을 사람들과 북누리공동체

함박웃음 사역에서는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한글 수업과 학교 수업에 대한 보충 수업을 해준다. 사역의 이름은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함박마을의 이름을 따서 ‘함박웃음’이라고 지었다.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날마다 함박웃음 짓기를 소



인천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가 섬기는 ‘함박웃음’에서 한국어수업을 받고 있는 고려인 아이들.



망하는 마음을 담백 담았다.

함박웃음 사역의 역사는 이렇다. 인천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가 이웃들의 필요를 찾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함박마을 사람들을 만났다. 고려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공동체 지체들과 나누고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다. 재정적인 문제,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었는데, 북누리공동체 리더십의 헌신으로 장소를 구했다. 북누리공동체 지체들이 교재, 교구, 가전제품 등을 후원하면서 모두 한마음으로 사역에 동참했다. 다문화 선교팀에서 섬기는 장로님이 함박마을의 고려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큰 도전을 받았다.

함박웃음 사역 장소를 찾으려고 여러 곳을 다녔는데, 마침 1층에 새 단장을 마친 집이 있었다. 주변에 고려인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두 군데나 있어서 고려인 아이들을 섬기기엔 알맞은 장소였다. 여기에 얼마 전 러시아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함박웃음 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됐다. 하나님이 함박웃음 사역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절실함과 성도들의 관심 그리고 사랑

함박웃음 사역은 지난 9월 20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고려인 참가자 모집 공고를 낸지 이틀 만에 100명 이상이 신청했다. 고려인들에게 함박웃음 사역이 얼마나 절실한지

를 느낄 수 있었다. 관심 있는 성도들도 많았다. 교사로 섬길 봉사자를 모집했는데 북누리공동체 뿐 아니라 타공동체에서도 동참해서 성도 50여 명이 지원했다. 지금은 평일에 사역이 가능한 성도 28명이 교사로 섬기고 있다. 공동체 리더십이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나와 고려인 아이들을 돌보고 섬겼다. 함박웃음 사역에서는 고려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다. 오전에는 엄마들반, 오후에는 아이들반, 저녁에는 아빠들반을 운영하고 있다.

최유진 교사(인천온누리교회 남누리공동체)는 “고려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면서 “순수하고, 예쁜 고려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제 삶의 활력을 되찾고, 보람도 크다”고 고백했다.

이아델 학생(9세)은 “함박웃음에 와서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면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문화를 익히고, 여러 가지 작품활동을 하는 체험학습을 하고 있다. 고려인 아이들을 인천온누리교회에 초대할 계획도 세웠다. 오는 12월 23일(토) 고려인 초청 잔치를 인천온누리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공연 보고,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 한다.

최종 목표는 복음 전파!

함박웃음 사역의 최종 목표는 복음 전파다.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일을 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함박웃음의 비전이다. 고려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 덕분에 함박웃음 사역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고려인들과 대화하다 보면 한국인들과 어울려 살고 싶은 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언어와 생활 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고려인들이 자꾸만 고립되고 있다. 함박웃음 사역이 비상해야 할 이유다. 고려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같은 민족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함께 어울려 살도록 그 힘을 제공해야 한다.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함박웃음 사역을 평생 사역으로 여기며 섬기고 있다. 함박웃음 사역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벌써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다. 고려인들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고려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덕분에다.

김종완 장로(인천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는 “함박웃음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해주셨다”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한 것보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고 간증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함박웃음 소리가 인천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에 울려 퍼지고 있다. 조건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기는 그들의 함박웃음이 “예수 믿으라”는 백 마디 말보다 강력하다.



“해외 봉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NGO 더멋진세상 노정숙 의료팀장의 17년 해외 봉사

NGO 더멋진세상 노정숙 의료팀장(서초 C공동체)이 제18회 KOICA 외교부 장관 표창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22일(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시상식이 있었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2006년 제정된 정부 포상으로, 세계 각지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해외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노정숙 의료팀장은 지난 2006년부터 17년 동안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등 재난 및 난민 지역과 소외된 아프리카 국가에서 의료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NGO 더멋진세상 노정숙 의료팀장(서초C공동체)은 지난 17년 동안 25개국을 다녔다. 그녀가 발걸음을 내딛는 대부분 국가는 케냐, 아이티, 아프가니스탄, 르완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말라위, 네팔, 몰도바, 레바논 등지다.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났거나 난민들이 사는 지역이다. 그녀는 그 척박하고 힘든 지역을 17년째 다니고 있다.

노정숙 의료팀장이 오지를 찾는 이유가 있다. 그곳에서 만난 이웃들을 대상으로 의료사역을 하기 위해서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그녀는 산부인과 질병에 무지하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는 오지의 여성들을 돌보고 있다. 여성 선교사들의 건강검진과 의료상담,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을 다하며 현지인들의 긴급한 치료와 건강회복을 위해 구슬땀 흘리고 있다. 그녀 덕분에 현지인과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그 아름다운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제18회 KOICA 외교부 장관 표창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그녀에게 전달했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외교부가 주최하고,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후원한다. 2006년부터 정부가 대한민국 해외봉사자들에게 이 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17년 동안 198명 수상했다. 이 상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인류애를 실천한 유공자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해외봉사자들의 활동 내용과 성과, 현지 파급효과, 활동 기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18회 KOICA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에서는 노정숙 의료팀장을 포함해서 총 9명이 수상했다.



NGO 더멋진세상 노정숙 의료팀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비로소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노정숙 의료팀장이 처음부터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해외를 다닌 것은 아니다. 죽음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해외 봉사를 시작했다. 17년 전만 해도 노정숙 의료팀장에게 해외 봉사는 도피처일 뿐이었다. 그 시기 노정숙 의료팀장이 가정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늘 ‘힘들다’는 생각이 그녀를 따라다녔고, 급기야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하게 됐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다. 그녀에게 하나님이 ‘해외 봉사’라는 처방을 내리셨다.

그 힘든 마음을 안고 찾아간 예배에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해외 봉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년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으로 긴급구호가면서 함께 갈 의료인들을 구하고 있었다. 노정숙 의료팀장은 곧장 해외 봉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

“죽음까지 생각하던 사람이 갑자기 해외 봉사 간다고 하니가 이상하니까?(웃음) 그때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라 어디라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해외 봉사를 시작했으니 비전도,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신뢰하게 된 것처럼, 노정숙 의료팀장도 도피처였던 아프가니스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 비로소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를 비롯해 여러 사역팀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하자마자 경악했다. 당장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곳저곳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테러로 인해 환자들이 넘쳐났다. 자신의 힘들을 생각하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자는 마음으로 두 팔을 걷어붙였다. 그곳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인연이 닿았다.

“환자들을 진료할 의료시설을 찾던 중에 KOICA에서 세운 의료센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물과 의료기기들은 있었는데, 진료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전쟁과 테러로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 저희 사역팀 외에는 진료팀이 없었습니다. 밖에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돌볼 의사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진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KOICA 의료센터에서 진료 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료의학사는 있어도 의학 박사학위는 없던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박사학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정숙 의료팀장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의학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했다. 한 생명이라도 더 돌보겠다는 의지로 밤낮없이 노력했다. 결국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신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공부하는 동안 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한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이 그녀의 비전이자 살아갈 이유가 됐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노정숙 의료팀장은 첫 해외 봉사를 다녀온

이후 시도 때도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현지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잊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 년에도 몇 번씩 케냐, 아이티, 르완다, 말라위 등지를 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

2015년 르완다에서 NGO 더멋진세상을 만났다. 그리고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에 매료되었다. 특히 ‘CHE 교육’ (Community Health Evangelism, Education and Environment; 현지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에 끌렸다. 현지에서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자립하도록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우고, 보건소와 병원을 건축해주고, ‘더 멋진 마을’을 조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의료사역을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사역하면서 ‘더 멋진 세상을 만들겠다’는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더 멋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여성들의 건강과 교육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지구촌 곳곳을 다니면서 이웃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오지에서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현지인들의 산부인과 진료 및 치료를 하고, 여성 선교사님들의 어려움과 아픔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노정숙 의료팀장이 17년 동안 해외에서 의료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 해외 봉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에도 손을 내저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 가족과 NGO 더멋진세상, 선교사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신원석 목사님(NGO 더멋진세상 담당)이 진료를 보다가 지쳐 있는 제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해외 봉사는 제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던 곳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한 게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귀한 상의 영광을 하나님과 현지에서 저보다 더 큰 수고와 노력을 하시는 선교사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동역하는 NGO 더멋진세상에게 돌립니다. 늘 큰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해외 봉사 및 후원 문의
02-2271-2246(NGO 더멋진세상)

2023 명예권사, 권사, 안수집사 임직 소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일꾼 548명이 세워졌다. 지난 11월 25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2023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권사 226명(명예권사 3명, 권사 223명), 안수집사 322명(남 133명, 여 189명)이 새로 임직됐다. 강경열 명예권사(용산공동체), 정호선 권사(송파A공동체), 서성배 집사(가정사역공동체), 유미란 집사(용산공동체)의 임직 소감이다.

/ 편집자 주

“화평의 열매 맺는 이름 없는 권사”



강경열 명예권사
(용산공동체)

하나님을 만나 행복한 인생이었습니 다. 모든 것을 채워 주시니 이토록 감사 가 넘치는 날이 또 없었습니다. 그 감사 함으로 사역하다가 2014년 1월 19일 천 안중앙감리교회에 서 권사 직분을 받았 습니다.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 리기로 약속했습니다.

2015년, 퇴직하고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온 누리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 사모하던 교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참 기쁘 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사역을 섬겼습니다.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활동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명예권사라는 귀한 직분을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주신 직분을 귀히 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삶을 올려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2023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에서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해주신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는 차선이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라는 말씀 이 기억납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와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몸이 약한지 라 내가 어떤 섬김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재훈 위임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 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차선의 아름다 움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마음이 들었 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나의 섬김이 차선일지 라도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실 것을 신뢰합니다.

가만히 앉아 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어 떤 헌신을 보여 드릴지 고민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셔서 7년 동안 섬긴 순장 자리를 더욱 열심히 섬겨야겠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양보와 이 해, 협력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 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 며 살고 싶습니다. 저의 바람은 기쁘게 하나님 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제 소원은 이름도, 빛 도 없이 그저 감사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조용 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화평의 열매 를 맺는 이름 없는 권사이고 싶습니다.

“삶으로 하나님 드러내는 권사”



정호선 권사
(송파A공동체)

임직자스쿨을 시작 하며 걱정이 많았습 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신앙의 부족한 부분과 교회에 대한 궁금증을 강의를 통 해 점검하고, 한 장 한 장 쌓이는 과제로 이 은혜와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기록이 되었습니 다.

임직자스쿨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하는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깊이 고 민했습니다. 온누리교회 선교 비전에 동참할 것입니다. 나의 평안만을 바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비전에 참여하려 합니다.

이 순간까지도 ‘내가 좋은 권사가 될 수 있 을까?’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권사의 모델’에서 배웠던 “좋은 성도가 좋은 권사”라 는 말을 기억하며 먼저 좋은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좋은 성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지고, 드러난다고 생각하니 제 삶에 부 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 니다. 제 삶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 행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하나 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 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 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좋은 성 도, 좋은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임직자스쿨을 수료하는 동안 새벽기도회에 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필독 서를 읽으면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사명을 바 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지나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하셨던 “가든지 보내든지 하 리”는 말씀이 떠올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보 내는 선교사로 열심히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봉사를 하면서 나의 상황이라는 큰 벽을 세우고, 사역에서도 선택 적으로 순종했던 지난날을 회개했습니다. 하 나님이 예비하신 사역에 순종하고, 부어주실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꿈꾸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나타내는 안수집사”



서성배 집사
(가정사역공동체)

올해 안수집사 임 직 대상자가 되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데 ‘이 직분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2020년 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 에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충실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임직자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들 고 큰 위로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개인택시를 하시는데 승객으로 우리 회사 직 원들을 태울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직원들 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많은 분이 저를 안타 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 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준비시켜 두셨다는 감 사가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아 이제는 하나 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

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 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부르심의 소 명이라 생각합니다.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제가 암 환자라는 이유만으로도 위 로가 되는데, 그것도 회장암 말기니 얼마나 큰 위로겠습니까? 그들에게 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4년 동안 살아있는 제 삶과 하나님이 주 시는 평안을 누리는 제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데 얼마나 좋은 재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암으로 인해 여호와와 선하심을 날마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 절 말씀처럼, 제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 신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처럼, 임직자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제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 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약 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로서 제가 서 있 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사 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됨의 기쁨 전하는 안수집사”



유미란 집사
(용산공동체)

제가 예수님을 처 음 만난 것은 학생부 수련회였습니다. 뜨 겁게 기도하면서 예 수님을 만났고, 차세 대, 대학부, 청년부, 가정을 이루고서도 신앙을 이어오고 있 습니다.

27살에 현역 군인 (장교)이었던 남편 과 결혼하고, 군교회를 섬겼습니다. 병사들을 섬기면서 기쁨도 많았지만,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 때문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했습 니다. 군교회를 섬기는 동안 내 인생을 세심하 게 만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 습니다.

7년 전 용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온누리교회 에 출석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더 크고 놀 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온누리 교회에 온 지 1년이 채 안 됐던 어느 날, 남편 에게 순장으로 섬겨달라는 권면이 있었습니

다. 30년 동안 군교회를 섬기다 왔기에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반대했습 니다. 그런데 남편이 곧장 승낙을 해버렸습니 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지 생각하며 순종 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섬긴 사 역은 회복사역이었습니다. 내적치유학교를 섬겼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는 참된 성도의 모습을 배웠습니 다.

어느새 제가 안수집사 임직 대상이 되었습 니다. 처음에는 ‘직분 없이도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총무님과 주변 성도님들이 “임직은 꼭 받아야 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임직자스쿨을 마치고 임직을 받고 보니 ‘직 분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직분은 한 교회의 일원이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백 성으로 훈련받는 자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지하며 하나님 의 일을 하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 님의 생각과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섬기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 됨의 기쁨을 전하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살전 5:16~18)

〈데살로니가전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라는 점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신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은 복음서보다 먼저 쓰였다는 게 아주 놀랍다. 가깝게는 10년, 멀게는 20~30년 정도 먼저 쓰였을 것으로 본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간략하게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짧은 시간에 세워졌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고, 위로와 격려를 담아 전달한 편지가 바로 〈데

살로니가전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짧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사도 바울에게 질문했고,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두 번째 특징은 매장 끝부분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1장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2장 ‘그가 강림하실 때’, 3장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4장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5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종말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궁금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답을 준다.

“예수님 재림의 때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매이기보다 그때를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삶에서 항상 선을 선택하고 따라야 한다.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한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선택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 말이다. 내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좋다. 그러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뜻을 이뤄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게 어떨까?

항상 선을 따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매 순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김상규 목사
(강남A공동체)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12월 4~10일
〈골로새서〉 2:1~4:18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완전성이 어떠한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내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교묘한 말로 속이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라고 교훈한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게 할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죄 사함을 이루고, 율법을 무효화시킨 승리 사건이다. 바울은 음식법이나 절기법 등을 따르지 말고,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권면한다. 교회의 머리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생명으로 자라나기 때문이다. 바른 경건은 철학, 금욕주의, 천사 숭배 등이 아니

묵상포인트 1: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며,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율법주의, 금욕주의 등 골로새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며, 성도가 붙들어야 할

라 오직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에 있다.

묵상포인트 2: ‘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날마다 추구할 때 가정, 교회, 일터에서의 삶이 바르게 세워진다. 현재 자리에서 어떤 역할과 직책을 맡았든 그 일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성도의 사명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 배려와 충성으로 공동체 구성원이 결속되는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해 묵상하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땅의 것을 멀리하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우리는 긍휼과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며 사랑과 평강을 추구해야 한다.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종들은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하고, 주인은 상전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종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한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바울이 소개한 동역자들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신실한 일꾼들이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합심해 섬기는 동역이 주는 위로와 기쁨을 묵상하자.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한다. 또 전도의 문이 열려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한다. 성도는 세월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낸다.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안부 인사를 전하고,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잘 이루라고 권면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생각하라고 하고, 은혜를 기원하며 편지를 마무리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멀리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기초한 단단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도록 힘쓰자. ▶내 삶 가운데 헛된 철학, 인본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등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키자.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불평이 아닌 용납과 용서를,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할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자. ▶가정, 교회, 일터에 사랑과 존중이 확대되도록 내가 더 노력할 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실천하자. ▶동역자들에게 전할 위로와 기도제목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가까이 시간과 물질을 드려 섬기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언니를 위해서!

저희 언니는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었는데 계속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저는 계속 언니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언니가 실패자라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언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언니를 전도하는 게 저의 오랜 기도제목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언니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언니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힘들 때마다 세상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하나님께 힘든 마음을 털어놓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언니가 힘든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우울증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진로도 하나님께 맡기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언니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언니를 인도해주시도록, 좋은 직장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Input’ 순예배는 ‘영적인 Output’

“예배드릴 때는 너무 좋은데, 순예배는 자주만 피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순예배가 꼭 필요한가요?”

예배와 순예배 사이에서 심적인 간극을 경험하는 지체들이 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주일예배에는 참여도가 높는데, 예배 이후 순예배는 잘 참여하지 않는다. 신앙생활에서 순예배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몇 가지 권면을 드리고자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공동체로 부르신 게 아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보고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흔히 교회를 가리켜 ‘구원받은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한다. 교회의 온전함이 기준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온전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은혜 아래 구원받은 불완전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

운 지를 깨달은 자들이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 힘쓴다.

내 시선에 비춰 순예배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세상의 어느 모임이라면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순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가에게 그것을 공급하고 있음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다.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이야기 한다. 예배(레이투르기아), 말씀 선포(케리그마), 교육(디다케), 친교(코이노니아), 봉사(디아코니아)가 바로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 기능이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다. 이 다섯 가지는 어느 하나에 치우

chein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다.

신앙생활은 결코 ‘홀로서기’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만 잘 갖는다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일 수 있다. 만약 그 생각이 맞는다면 하나님이 굳이 내가 함께하는 이들, 공동체, 가정을 주실 이유가 없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건강한 관계’와 ‘나와 사람들의 아름다운 관계’가 씨실과 날실이 되어 완전한 옷을 만드는 과정과 같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간단하게 요약하신 것도, 십자가의 모양이 수직과 수평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도 같은 의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 받은 존재들이다.



정한효 목사
(W청년부)

“예배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체험과 회복의 경험이라면 순예배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더욱 풍성하게 한다.”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엢 1:23)이라고 했다. 몸이 머리와 관계가 없을 수 있겠는가? 한 몸에 연결된 기관이라면, 각각의 기관은 그 몸의 유전자와 혈액 등 신체의 모든 것을 공유하기 마련이다. 내가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공급받고 있고, 누

칠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요소들이다. 이 다섯 가지 요소에 주일예배와 순예배가 포함되어 있다. 예배가 ‘영적인 Input’이라면, 순예배는 ‘영적인 Output’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체험과 회복의 경험이 예배라면, 순예배는 받은 은혜를 나누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자리다. 순예배는 내가 받은 은혜가 단순한 감정적 감동이 아니라 진정한 온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부부

성경의 ‘귀하게 여기다’는 말에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보는 사람이 대상에게 가치와 귀중함을 가지고 높게 평가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뒤따르게 된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게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다.

게리 토마스의 저서 〈행복한 결혼학교〉에서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기 위한 몇 가지 태도를 제안한다. 첫째, 소중히 여기는 부부가 되려면 말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 말하는 뉘앙스도 중요하다. 신중하고 세심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소홀하게 대할 수 있다. 특히 대화 과정에서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어투로 말하기도 한다.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투가 어떠한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만일 부부가 대화하면서 무례하다고 느껴지는 말들이 오고 간다면 존경하는 태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려면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 안 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설명해 달라고 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식었다면 사랑과 애정도 식었다고 할 수 있다. 부부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에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더는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부부가 서로를 궁금해 하지 않고, 호기심을 갖지 않는다면 사이가 점점 어색해질 것이다. 서로에 대해 궁금증과 호기심을 의식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서로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고백하기도 한다. 사람은 늘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한 시점에 머물러 있지 않다.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다. 따라서 늘 새로운 자세로 호기심을 갖고 배우자를 대하는 게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다.

셋째, 배우자의 행동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때도 변함없이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배우자로 인한 불편함과 꼭 바꿨으면 하는 행동 패턴을 지적하기에 앞서 여전히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상처가 남지 않고, 잘 소통할 수 있을지 서로 논의하는 게 좋다.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불편해지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물론 배우자의 독특한 습관을 적절하게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그러나 서로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생활태도나 습관이 있다면 적절하고 온화하게 시정을 부탁할 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 중 한 사람으로 인해 늘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힘들겠지만 온화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서로 가장 적절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좋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불편함이 분쟁거리로 남지 않도록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태도 없이 지적과 분노로 행동의 수정을 요구한다면 부부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행동수정을 부탁할 때는 본인의 관점에 서만 요구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세심하게 물어보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약속 시간에 10분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등의 접근 방식을 택하는 게 좋다.

넷째,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이 부드러우면서 구체적이다.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부부는 마냥 감정적으로 좋아서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단계를 지나 의지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을 표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사랑의 감정이 충만했을 때는 상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 자연스럽게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애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우자를 소중하게 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감정적으로는 불편하고 힘든데,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지점에서 괴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감정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지만,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다. 놀라운 것은 의지적 결단으로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 가치 있게 여김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긍정적인 감정이 배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식어져 있던 애정과 사랑의 감정도 의지적인 사랑 표현을 뒤따라서 온기를 회복하게 된다. 의지적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사랑과 온화함을 표현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동력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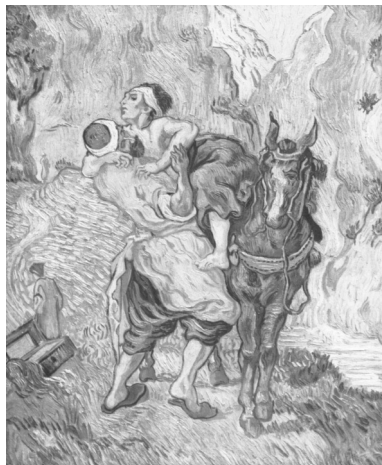
다섯째,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꾸준히 나눠야 한다. 하나님이 최근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나눌 때 서로를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다.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의 깨달음을 정기적으로 함께 나눠야 한다.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더욱 귀하게 대할 수 있다. 부부는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관계여야 한다. 서로를 가치 있게 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진짜 이웃이 누구인가?”



음악 QR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온누리 교회도 따뜻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을 더 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진짜 이웃’이다. 추운 겨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 간주곡과 그림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따뜻함을 전하는 ‘진짜 이웃’의 모습을 목상했으면 좋겠다. 마스카니(Mascagni)의 ‘카발레리아 루스티

마스카니(Mascagni)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Cavalleria Rusticana)’ 간주곡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선한 사마리아인〉

카나(Cavalleria Rusticana)’의 간주곡은 오페라에서 사용된 음악이다. 음악만 들으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진다. 하지만 오페라 속 장면은 그렇지 않다. 폭풍이 멈추고, 주인공이 칼에 찔려 죽게 된다. 죽기 전에 정말 불안하고 위험한 상태에서 감정적 소강상태를 맞는데 그 시간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이다.

곧 맞이할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여기 또 있다.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의 〈선한 사마리아인〉(1890)에 그려진 강도당한 자다. 이 그림은 낭만주의 화가로 잘 알려진 외젠 들라크루아(Ferdinand Victor Eugene Delacroix)의 같은 제목의 그림을 모작한 것으로 유명한 작품이다.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을 들으면서 그림 〈선한 사마리아인〉을 살펴보자. 칼에 찔린 주인공, 강도당한 자가 자신을 도와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느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눅 10:30-34).

그림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누가복음〉 속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 배경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된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않는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인이 와서 강도당한 자를 도왔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천한 신분이었다. 아무도 가까이하지 않으려던 사마리아인, 그가 강도당한 자를 도와주었다. 강도당한 자의 ‘진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었다.

고흐는 작품에 강도 만난 자와 그를 돕는 사마리아인을 그려 넣었다. 강도당한 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고, 사마리아인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도와주고 있다. 남을 돕는 일

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그림에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왼쪽에 조그맣게 두 사람이 보인다. 강도당한 자를 모른 척은 감고 지나간 레위인과 제사장이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있다.

고흐는 그림을 통해서 사람은 혼자서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했다. 또 혼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진짜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의 주변에 고난당한 이웃이 누구인가”, “너는 과연 어떻게 그들을 돕겠는가”라고 질문하신다. 음악과 그림 속에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를 바란다.

최정주 권사
(아트앤뮤직 큐레이터)

두란노 신간

인생의 살롬 회복!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
류인현 저 | 두란노 | 16,000원

우리는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세상에서 살롬을 회복해야 한다.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의 저자 류인현 목사는 “흑등고래에게서 행복을 발견했다”고 고백한다. 흑등고래는 다른 고래들보다 조금 느리다. 하지만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바다의 유기물을 순환시켜 해양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돕기도 한다. 죽은 후에는 심해로 내려가 생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한다. 흑등고래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기 때문이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조금 느리더라도 흑등고래처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행복한 세상을 꿈꾸면 된다. 책 〈춤추는 고래는 행복하다〉는 인생의 살롬을 회복하는 21일 묵상집이다.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기도문이 있어서 인생의 살롬을 회복하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된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를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오늘의 hymn
(찬송가, 찬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아침’
오벨 곡

아침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가? 새로운 출발, 희망, 행복이 그려지는가? 아니면 불안, 걱정, 피곤함이 그려지는가? 찬양 ‘아침’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열어주셨다”고 고백한다. ‘반복되는 똑같은 하루가 아닐까?’, ‘어제보다 나은 하루를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마음과 다르게 아침 햇살이 정말 밝다.

아침 햇살을 보면서 깨닫는 사실이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버겁다고 느껴져도, 내일 하루가 두렵게 느껴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매일 아침을 새롭게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루를 맞이하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물 같은 아침을 맞이하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하루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찬양 ‘아침’은 QR 코드,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찬양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학교 편

‘탄소중립’은 어른들만의 숙제가 아니다. 학생들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방법들이 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등하교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등하교할 때 부모님이 태워다 주시는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둘째, 급식을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실을 비울 때 조명과 냉난방기를 꺼야 한다. 이동수업을 하거나 하교할 때 교실의 조명을 소등하고, 냉난방기 전원을 확인하면 전기를 아낄 수 있다. 겨울에는 담요나 보온용품 사용해서 난방 온도 2도를 낮추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넷째, 교복 물려주기를 실천한다. 졸업하거나 옷이 맞지 않아서 교복을 바꿔야 한다면 친구나 후배에게 물려주면 좋다. 교복을 생산하거나 버릴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누리청소년센터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현판식을 진행했다.

온누리청소년센터,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 및 최우수기관 선정

온누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온누리청소년센터(자립지원관)가 3년마다 진행되는 종합평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축하하는 온누리청소년센터 개원 21주년 감사예배 및 최우수기관 현판식 행사가 지난 11월 29일(수) 있었다. 이 자리에는 송영범 대표이사(온누리복지재단), 법인 임직원, 시설 운영위원, 이용 청소년 등이 참석했다.

김형근 센터장(온누리청소년센터)은 “온누리청소년센터가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든든한 멘토이자 좋은 어른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온누리청소년센터는 2002년 ‘하나로군포시청소년쉼터’로 개원했고, 현재 꿈의집지역아동센터와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두란노서원 ‘두플러스’, 기독교브랜드 대상 ‘리딩 부문’ 수상

두란노서원의 복음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 ‘두플러스’가 ‘2023 기독교브랜드 대상’ 리딩 부문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독교브랜드 대상은 국민일보 주관으로 건전한 기독교 발전과 문화조성을 위해 해마다 시상하고 있다.

2023 기독교브랜드 대상 리딩 부문에서는 두란노서원을 포함한 모범 브랜드 6개 단체(두란노서원, 모통이돌선교회, 본월드미션, 순복음강남교회, 에스더

기도운동, (사)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가 선정됐다. 두란노서원 ‘두플러스’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성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콘텐츠를 즐기도록 돕고 있다.

2023 기독교브랜드 대상 시상식은 12월 5일(화)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큐티 REFRESH’

12월 9일과 16일 서빙고 홍보관

큐티가 아직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특별한 강의가 열린다. 큐티사역팀에서 준비한 ‘큐티 REFRESH’가 바로 그것이다. 오는 12월 9일(목)과 16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아이스쿨의 큐티 과정을 수료한 온누리교회 성

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큐티 REFRESH에서는 큐티사역팀에서 제공한 온누리교회 QT 관련 강의와 큐티 나눔 및 발표를 한다.

신청은 QR코드에서 하면 된다.

문의: 이정훈 총무
(010-8378-5307)



66기 내적치유학교 12월 3일까지 참가 신청

66기 내적치유학교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양지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2월 3일까지 아이스쿨(i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타교회 성도는 전화로 등록하면 된다. 회비는 18만 원.

문의: 010-6330-7634

갈렙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갈렙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에서 열린다.

1~5주차는 비대면, 6~8주차는 대면으로 진행된다. 매주 온라인에서도 과정을 진행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2833-9936

‘부채탈출 119’ 참가자 선착순 모집

재정 설계와 부채 해결 돕는 프로그램

‘부채탈출 119’ 참가자를 선착순 50명 모집한다. ‘부채탈출 119’는 재정상담 및 법률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재정 설계와 부채 해결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및 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온누리교회 성

도나 온누리교회 성도가 추천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메일(js003225@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434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3

미디어사역본부, 12월 17일까지 크리스마스 이벤트

미디어사역본부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3’ 이벤트를 실시한다.

‘온누리의 크리스마스 2023’은 자신의 메시지를 크리스마스 카드로 꾸며서 성탄을 축하하는 이벤트다. 직접 제작한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의 의미가 담긴 콘텐츠(실물 제작, 그래픽 사용 가능)를 제작해서 제출하면 된다. 그래픽의 경우 JPG,

GIF, MP4 파일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의크리스마스2023) 또는 이메일(onnurismart@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서울 용산구 이촌로 347-11 온누리교회, 본관 2층 IT지원팀 이경희)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작품을 제출할 때는 소속 캠퍼스, 공동체, 이름, 전화번호를 꼭 기록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응모는 DM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651

‘3040을 위한 축복 축제’

12월 30일 오후 4시 서빙고 두란노홀

이수공동체가 ‘3040을 위한 축복 축제’를 개최한다. 12월 30일(토)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열린다. 대학청년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 이후 성인공동체로 이동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 성인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젊은 가정이 대상이다. QR코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수공동체에서는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관계, 출산 및 양육, 자녀 교육, 직장 문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코칭을 제공하고, 공동체 정착을 돕는 ‘링크순’과 ‘젊은 다락방’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10-5917-5608



온누리선교재단 ‘제4회 김치 나눔’ 축제

이웃들에게 김장김치 250포기 전달

온누리선교재단 ‘제4회 김치 나눔’ 축제가 지난 11월 27일(월) 열렸다. 온누리선교재단 직원 37명이 서빙고온누리교회 한식당에서 김장김치 250포기를 담갔다. 교회 주변 이웃 3명과 온누리탁구선교회 임원 9명도 참여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 아파트 경비원과 독거노인, 미혼모 가정 등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임영필 집사(온누리선교재단)는 “정성껏 담긴 김장김치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 김다애 기자

양재 2000선교 비즈니스미션팀 세미나

12월 3일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양재 2000선교 비즈니스미션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12월 3일(주일)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강의동 306호에서 ‘비즈니스 선교(사명, 소망)’을 주제로 열린다. 방선기 목사가 강의한다.

비즈니스와 선교적 삶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

다. QR코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양재 2000선교 비즈니스미션팀에서는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도록 돕고 있다.

문의: 010-7228-5798



■ 'Why Mission?' 수료 간증



/ 최문아 성도(송파A공동체)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삶!

‘Why Mission?’ 과정을 수료하면서 선교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나누는 일임을 깨달았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선교적 부르심이었고,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집트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선교적 의미가 있었다는 게 특별하게 다가왔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놀라웠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스라엘 같이 차별적 선택을 받았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열방에 전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교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기 때문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다. 자녀가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특별한 자를 부르지 않고, 연약한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 선교 역사를 배우면서 누구나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수많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과 지금도 선교지에서 그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었다.

선교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도 배웠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만 원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선교사의 삶에 대한 정리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귀한 비밀이 있기에 수많은 이들이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같다. 많은 선교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종족을 위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선교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선교지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단편적인 선교사의 삶을 폭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분들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그분들도 나와 같은 연약한 면이 있지만, 선교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60세 이후 삶은 나의 수고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인가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적 책임을 다하는 삶을 기도하면서 찾고 있다. ‘Why Mission?’ 이 나에게 믿음의 정체성과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 관악금천공동체 맞춤형도집회 간증



/ 최승순 성도(관악금천공동체)

누군가 드린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믿음생활은 새벽기도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저는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이 내 기도였다. 어느 날 오후, 내 마음에서 따뜻한 음성이 들렸다. “네 생명이 누구 때문에 있느냐?”라는 미세한 음성이 들려서 나는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있습니다”라고 응답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뜨거워졌고,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염없이 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기도가 시작됐다. 나에게 회개난치암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혈액으로만 알 수 있는 암이었다. CT 촬영으로도 스캔되지 않는 암이라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곧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으로 꼬박 3일을 잠을 자지 못했다. 죽는다는 사실보다 하나님 뵈 생각에 더 걱정이 많았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 온 삶을 보시고 뭐라고 하실지, 그분께 내 삶이 어떻게 보일지 고민이 컸다. 그러다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다.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 허락 없이 뽑히지 않는 것인데 왜 나에게 암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었다. 하나님이 “너의 거룩을 위하여”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 순간 기뻐고, “그럼 됐어요”라고 말씀드렸다. 그날 이후 하

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

돌이켜 보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과 매일 교감하는 나에게도 전도가 쉽지 않았다. 전도대상자를 위한 기도와 섬김을 오랫동안 해야 하고, 마침내 사랑의 수고로 거절할 수 없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관악금천공동체의 맞춤형도집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공동체에서 음악회와 식사, 귀한 말씀까지 모두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초대만 하면 됐다. 주변에 “가을 음악회에 오지 않을래요?”라는 말만 전했는데 모두 흔쾌히 수락했다. 너무 쉽게 초대에 응해서 어리둥절하기까지 했다.

이 모든 게 누군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전도하면서 박성천 목사님과 관악금천공동체 지체들의 많은 수고와 기도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번 맞춤형도집회에 14명을 초대했고, 12명이 집회에 오셨다. 무려 5명이 현장에서 세례를 받았다.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맞춤형도집회를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린다.

■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김은정 성도(송파A공동체)

다시 쓰임 받는 우리 가정

사춘기가 심하게 온 아들로 인해 고민이 많았다. 정신과 상담도 생각했다.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벽에 붙은 포스터를 보았다.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광고였다.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다.

1주 차 강의 ‘자녀와의 공감 대화’를 듣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다. 나는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공감해주고 있는지 생각했더니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아들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음을 깨달았다. 이후 아이들과의 대화법을 바꾸었고,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8주라는 시간이 금방 흘러갔다. 아들과 딸을 난생처음 필리핀 아웃리치에 보내면서 많은 생각이 오갔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위안을 받을 때도 있었다. 아웃리치 떠나는 날 아침에 아이들의 캐리어를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났다. 아이들이 아웃리치가 있는 동안 기도를 정말 많이 한 것 같다. 새벽에 공황으로 아이들을 마중하러 가면서 설

렷다. 약간 거뭇하게 타기도 하고, 아원 것 같기도 한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반가웠다. 아웃리치를 잘 마치고 온 아이들이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다. 아이들이 해외에서 부모 없이 공동체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이 많은 것 같았다.

파워임팩트 과정을 수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게 또 있다. 우리 부부는 순장으로 섬기다가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내려놓고 쉬고 있었다. 다시 남편이 서울로 왔지만, 우리 부부는 안개순원으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었다. 마음에 늘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다. 아이들이 아웃리치를 떠난 이후 우리 부부는 공동체 생활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연히 공동체 총무님을 만났다. 총무님이 순을 배정해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가기로 한 순에 순장님이 그만두면서 그 순을 섬겨달라는 권면을 받았다. 남편과 내가 다시 순을 섬기게 되었다. 아이들이 아웃리치를 결단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고 계신다. 항상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 큐티스쿨 수료 간증



/ 현민교 성도(강촌공동체)

큐티스쿨이 희망을 줬다!

나는 1년 반 전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큐티를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큐티를 했다. 하지만 난생처음 접해보는 큐티가 생소하고, 어렵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교육을 받으면서 하용조 목사님의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를 읽고 독후감을 썼다. 그런데도 큐티가 어려웠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담당 목사님이 내게 큐티스쿨을 추천하셨다. 아이스쿨에 10월 오프라인과 11월 온라인 수업이 있었다.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당장 큐티스쿨에 등록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나는 묵상은 잘 되는데 적용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큐티스쿨에 등록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초점을 뒀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큐티스쿨 담당목사님의 강의 들으면서 나는 묵상부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만 몰두해 힘을 잔뜩 주고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목사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해지라고 강조하셨다. 하나

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질문도 하고, 대화해보라고 하셨다. 묵상의 대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셨다.

큐티스쿨에서 배운대로 큐티를 시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적용할 것과 묵상할 말씀을 함께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태까지 내가 했던 큐티가 정답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큐티스쿨 수료 이후에는 큐티는 하나님이 정답을 주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1년 반 넘게 꾸준히 큐티를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큐티스쿨이 나에게 희망을 줬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실천 가능한 일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꾸준히 하나님과 대화하며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내 삶이 변할 될 거라 확신한다.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친해지는 큐티 시간이 기다려진다. 큐티스쿨로 나를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장로칼럼

한 해의 삶을 돌아보는 아침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아침에 세수하다가 정제봉의 시 ‘첫 마음’ 첫 소절이 문득 떠올랐다.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로 접어들어 서니 ‘날마다 새로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했던 새해 새 아침의 첫 마음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한 해 동안 신앙인으로 살면서 사랑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는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가엾게 여겼는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했는지, 오래 참지 못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절제하지 못했던 일들이 마구 떠올라 마음을 더욱 어렵게 했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지나치거나 넘치는 것은 탐욕에서 비롯된다. 선현들은 지나친 욕심을 막기 위해 술잔의 70%가 차면 밀로 새 나가도록 잔에 구멍을 뚫었다. 가정에서도 저축이 많으면 소비가 줄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율이 너무 낮으면 수출이 줄고, 너무 높으면 수입이 준다. 세금이 적게 걷히면 국가 재정이 위태롭게 되고, 삶 가운데 과욕을 부리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 적절한 겸손은 인간관계에 약이 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예의에 벗어난다. 조직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서 맹목적인 단계가 되면 조직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절제가 매우 중요하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말의 절제, 행동의 절제, 음식의

절제, 물건의 절제 등이 꼭 필요하다. 말의 정도가 지나쳐 화근이 되기도 하고, 행실이 지나쳐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한다. 음식을 먹거나 물건을 살 때도 너무 지나쳐서 후회할 때가 많다.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균형 감각을 갖춰 권력을 가졌어도 함부로 힘을 쓰지 않고, 돈이 많아도 과욕을 불리지 않으며, 할 말이 많아도 경청을 더 많이 한다.

믿음의 년 수가 많고, 나이가 많음을 자랑하지 않았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게 어떨까? 고정관념에 갇혀 더 넓은 혜안(慧眼)을 갖지 못하고, 울타리 밖의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뉘우치기 전에 또 한 해를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삶의 유한함과 한계를 생각하며 자신의 프레임(프레임)을 더 키우고, 마음의 근육을 축적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이름답게 열매 맺는 삶이 아닐까 싶다.

세상과 사람을 적대시하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아닌지, 자기 성찰에 더없이 게으르지 않았는지, 열정과 가치는 망각하고, 마음속 평온함만을 찾는 것은 아닌지, 세상을 바꾸려 달려들기보다 나부터 바꾸려는 행함을 더 많이 갖고 있는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까운 곳은 스쳐가고 먼 곳에 서만 찾으려 애쓰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자. 100세 시대를 사는 김형석 교수는 “정신적으로는 상류층,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머물라. 많은 재물을 소유해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어색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나를 위한 일보다는 사회적으로 보람 있는 일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다. 인생의 덧없음을 바라보지만 할 게 아니라 머리에만 담아두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왜 망설이기만 하고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지 못했는지 뉘우치며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는 말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권사칼럼

따뜻한 품이 필요한 청년들



신권순 권사
(김포공동체)

많은 사람이 ‘요즘 청년들 버릇없다’,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 때와는 다르다’고 말한다. 하지만 청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경험하게 된다. 나는 청년부 멘토로 섬기면서 우리 때보다 멋지고, 똑똑하고, 생각 깊은 청년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교회와 나라의 미래가 이 멋진 청년들의 손에 달려 있어서 우리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고민이 많다. 정말 외롭고, 우울한 청년들이 많다. 장래의 막막함과 연애, 결혼, 출산에 관한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는 청년들을 많이 본다. 그들을 위해 온누리교회가 지난 10월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를 개최했다. 미래성장위원회에서 주관한 행사였다. 이 행사에 600명이 넘는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참석했다. 많은 청년이 인구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는 여러 목사님과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그룹토의와 발표를 했다. 질의응답과 발표 시간에 자신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결혼과 출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게 되었다. 청년들의 이야기에 이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누리교회에서 정부와 기관, 기독교 단체, 타 교회의 문을 두드리며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척 감사했다. 그 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어서 오기를 기도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아이들을 보면 예뻐서 어쩔 줄 모른다. 원래도 아이들을 좋아했지만 요새 부쩍 더 예뻐 보인다. 올해 초 유아3부 5세반을 섬기는 코치님에게 콜링이 왔다. 주일날 교회에 도착한 아이들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는 ‘웰컴 축복기도 할머니 교사’로 섬겨달라는 부탁이었다. 그 부르심에 곧장 기쁨으로 순종했다. 기도 할머니로 아이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아이들이 달려와 품에 안길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따뜻한 품과 축복기도가 필요한 것은 차세대뿐만이 아니다. 청년들에게도 기도 할머니, 아니 기도 어머니와 기도 아버지의 품이 필요하다. 청년들에게 그 따뜻한 품을 내어줄 어른들이 온누리교회에 더 많았으면 좋겠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 ‘멘토’라는 좋은 제도가 있다. 삶의 지혜가 풍성한 나이 많은 성도들이 청년들의 삶과 신앙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귀한 섬김의 자리다. 훌륭하게 살아오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청년들 곁에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를 소망한다. 먼저 살아온 어른들의 지혜가 청년들에게 인생 자산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이야기를 청년들과 나눈다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제2의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청년들이 멘토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따뜻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조심스럽게 건의한다. 청년들과 성인 성도들이 만나는 더 많은 장(場)이 열렸으면 좋겠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처럼, 함께 마음 편안하게 결혼과 출산 문제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여러 노력과 시간이 쌓이다 보면 온누리교회에 젊은 부부가 더 많이 생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할 날이 오지 않을까? 그날을 기대하며 청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린다.

신앙에세이



김훈 선교사
(군산M센터)

2021년 8월 31일, 안식년 기간이었다. 군산 새만금 지역에 이주민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바로 군산 지역 이주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18개국에서 온 2천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2년 3월, 노규석 목사님이 군산을 방문해서 선교전략을 세우고, 군산M센터의 이주민 사역의 방향을 정리해 주셨다. 그때부터 군산에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했다.

현재 군산M센터에서는 7개국에서 온 30여 명의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7명에게는 교과목

을 비롯한 다양한 예체능 교육 및 문화 탐방을 돕고 있다. 이 사역은 한권조 선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매주 주일에는 다문화가정 어린이 7명이 ‘다문화 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주민 근로자 10여 명이 ‘열방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은 익산에서 식품제조업을 하는 집사님을 사용하셔서 이 회사에 근무하는 이주민 근로자 13명을 만나게 하셨다. 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또 김향심 선교사를 호원대학교로 인도하셔서 강의 중에 만나는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

군산M센터는 이제 개척기를 지나 성장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군산M센터

의 모든 사역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역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교회가 위기에 처하자 교회 공동체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골 1:27)고 교훈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범을 배우고 행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다. 군산M센터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섬기는 삶으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고 있다. 어린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선생님, 배고파요!”라고 하면 얼른 간식부터 챙겨주고, 알림장을 바꾸며, 보충학습을 도와주고 있다. 매주 토요일은 어린이들과 함께 특별활동을 하고, 음식을 만들어 나누면서 교제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에는 군산M센터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지역발전협의회’와 함께 의논

하고 있다. 하나님이 군산에 예수님의 빛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원래 군산에서 이주민 근로자들이 사는 곳이 세 개의 섬이었다. 하지만 1988년 1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해안매립사업이 이뤄져 여의도 면적 80배에 달하는 육지가 생겼다. 이 지역에 초등학교가 하나뿐인데, 3년 후에는 중학교가 생긴다. 군산 새만금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 단지’로 선정되면서 국내 대기업과 23개 기업이 총 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2028년까지 이주민 노동자를 포함해서 약 20만 명을 더 고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으로 군산M센터에서 섬겨야 할 이주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군산M센터를 통해 더 많은 이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삶을 살면서 Acts29 비전을 군산에서도 이뤄가기를 소망한다.

군산M센터의 Acts29 비전!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본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희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4시 / 첫째·셋째 주일 오후 1시 30분~3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근무)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한누리학사 탈북민 대학생 남자기숙사 입주자 모집
모집: 서울 소재 2년제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과정에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 및 동일한 과정의 입학 예정자
인원: 남자 6명
문의: 010-7107-5270(한누리통합팀)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수요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희(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희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중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희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라방랜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통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조직신학
접수: 2024년 2월 1일~5일 15:00까지
문의: 02-570-7192
*홈페이지(www.ttgu.ac.kr)에서 초빙공고 참조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희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벤젤라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25 본당 / 3부 14:05 본당

대학청년(주일) 16:00 본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본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국내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8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미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	--	---	--	--	--	---	--	--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향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국 김성웅
김승걸 김승완 김경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종민
김지영 김중호 김창호 김태웅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태대 럼문용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전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식 서경남
송석기 송영동 송재표 신기성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목 윤매리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훈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관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정현 최형준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석희 하정훈
한화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황용일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중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종균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연은 한배철 나주봉
박씨마 백승현 비 켈 서영철
생아매는 사기트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이아라프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지연
정옥진 제인랑 존페이즈 차제미
최정현 최효정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규용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구길모 권대식 권여람 김가희
김기태 김디모데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영신 김예담 김예찬
김요셉 김의연 김지선 김진희
김태극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김홍미 나가노 마사토
남 헤 이진희 임혜선 윤지연
박 성 박성훈 박예슬 박요한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예민 백성주 서예찬 손위결
송유진 송선애 신주용 심은섭
안무택 양현모 영경덕 오국현
이동희 이두승 이만식 이무용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곤
이광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광로 이재철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권 정보원
정순풍 정영원 정용화 정택락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창현 조희동 주수일
주용일 차승철 차준근 차주한
천연수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장수
최종길 최희영 편무익 한갑수
한규종 한덕중 한배진 한양희
한종재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욱
황용우 황의서 황재규

☞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익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인식 강은철 강창제 강태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현
금세종 김경도 김경화 김도영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연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국 김상진 김상철
김성호 김성규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선 김영숙 김장진 김영환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진 김재일 김정민
김정훈 김종만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정수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경 김형준
김희중 김화선 김효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영 나영욱
남병현 남상길 남상욱 남윤창
남정진 남준우 노기훈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성찬
문영기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성용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종현 박지수 박지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홍균
박홍진 박종욱 서달식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재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성 송성식
송종환 송희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현상 심갑섭 심효무 심하돈
안동혁 안상현 앙상식 앙 웅
양준홍 양준중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목 오성훈 오스타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윤영각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전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복을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을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혜달 이현규 이홍선 이 훈
임병순 임상범 임정원
장경식 장운길 장규찬 장문석
장선철 장우진 장정열 정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병로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택
정영화 정영원 정제법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구 조재광 진종규
최민철 최봉림 최삼근 최석민
최석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호림 하주현 하주원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홍희 한필규 함일성 함정희
허 경 허정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해남 황윤일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희만 이원로 이혁상 작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한
채수식 최창걸 황용식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패드라스 박지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표규명 합지연 황재익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진아 김세일 김은혜 김절경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김진우 박정규 손창우 송희정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병근 이병철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근 전지영 정성미
채미진 최경원 최영은 최윤서
최지선 최인자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가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은지 김은지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노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선진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성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예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근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 해외 온누리교회

☞ 담당목사

강영환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박신용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이길택 요시하라 마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미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 미주 OMA 담당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종재 정장철

☞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병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운 김진수 김재형
김창식 김향선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병삼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병중 유영순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승운 이은택
이우영 이정주 이영근 장이삭
장재홍 전상현 전홍현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은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요앤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광고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할

황광보 김기영(원정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황윤건(원정교회)
신평섭, 박경희(온누리교회)의 딸 신소망(온누리교회)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할

국철호 김정미(온누리교회)의 아들 국형전(온누리교회)
장상목, 최미례(잠실새내교회)의 딸 장유빈(잠실새내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예, 김예은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축탁의(유급 봉사자) 모집

대상: 의사면허 소지자
기간: 월 1회/회당 1시간(워킹 시간 1년)
장소: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내용: 복지관 어르신의 건강상담 및 물리치료 처방
문의: 조진희(02-703-6011)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11/24(금) 이촌 김학수 성도 아내상 고 김영숙
11/25(토) 중종로 김미란 성도 부친상 고 강병호
11/25(토) 관악금천 박인자 성도 남편상, S브릿지 최보용
성도 부친상 고 최중협
11/27(월) 이촌 이주숙 집사 시부상 고 김종수
11/27(월) 서빙고 고 고광미 명예권사
11/27(월) 송파B 장성수 성도 부친상 고 장승덕
11/27(월) 서초C 안태환 집사 모친상 고 이호란
11/27(월) 강남D 박진우 집사 모친상 고 오정에
11/27(월) 강남A 흥성한 성도 모친상 고 강봉자
11/28(화) 경기A 이인희 성도 모친상 고 김미순
11/28(화) 서초C 송은경 성도 시부상 고 홍순현
11/28(화) 관악금천 김인선 집사 모친상, 김민숙 권사 시모상
고 박유리
11/28(화) 고양은평 이대용 성도 부친상, 홍미정 성도 시부상
고 이현호
11/29(수) 마포 김동우 성도 모친상 고 이형숙
11/29(수) 성동광진 최봉림 장로 빙모상 고 김윤임
11/29(수) 열마린온누리교회 이상수 전도사 부친상 고 이길현
11/29(수) 광명 이선화 성도 부친상 고 이성운
11/30(목) 천양 임미경 성도 모친상 고 이사순
11/30(목) 대전온누리 고 김승열 장로

본격 크리스천 청년 고민상담 프로젝트

고민아웃

"나만
어렵나요?!"



MC 김계리

매주 화요일 '풍당' 업로드

Point 1

실제 크리스천 청년들의
사연 접수를 통한 주제 선정

Point 2

사연에 공감 200%
'미니 재연 드라마'

Point 3

고민 해결을 위한 강력한 멘토진
'김남국, 임은미, 김선교, 김성경'



앱 다운로드